

## “김광현, 다저스와 2년 3,600만 달러 계약 예상”



▲ 김광현 사진=redbirdants.com

미국 야구통계사이트가 김광현의 차기 행선지를 LA 다저스로 전망했다.

지난 23일 '스포츠투에이'에 따르면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전날 미계약 FA 투수들의 차기 행선지와 계약 규모를 예상하며 김광현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트레버 바우어의 복귀 여부를 떠나 LA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이 매우 빈약해 보인다."라며 "4점대 이하의 평균자책점을 기대할 만한 선발투수는 더스틴 메이 뿐인데, 그는 시즌 중반 이전에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바우어는 지난 9일 여성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MLB 사무국의 자체 조사를 별개로 받고 있다. 이는 다저스의 선발진이 불안하다는 전망이다.

팬그래프닷컴은 김광현이 다저스와 2년 3,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김광현이 이 매체의 예상처럼 계약을 맺는다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는 류현진의 연봉이 2,0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정상

급 대우를 받는 셈이다.

이 매체는 "다저스가 좋아하는 것이 유연성인데 김광현은 선발투수와 중간계투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또 상대 타자를 현혹하는 김광현의 슬로우 커브는 세인트루이스가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위력적이다."라며 김광현의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 매체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ZiPS (Szymborski Projection System)를 참고해 김광현의 2022년 성적을 10승 8패 평균자책점 4.09로 예상했다. 김광현은 지난 2020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계약을 맺고 35경기에 나서 10승 7패 평균자책점 2.97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직장폐쇄로 FA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선발투수가 필요한 구단이 눈여겨볼 선수로 꼽히고 있다. 김광현은 2022시즌을 앞두고 계약이 종료됐으나 지금껏 미계약자로 남아 있다.

한편 매체는 김광현과 함께 클레이튼 커쇼가 텍사스 레인저스와 4년 1억 2,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미컬슨, 'PGA 전설'에서 '조롱거리'로 전략

지난 30년 동안 메이저 대회 6승을 포함한 PGA 투어 통산 45승, 최고령 메이저 대회 우승(50세11개월), 세계 골프 명예의전당 회원이라는 명성을 쌓아온 필 미컬슨(미국)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됐다.

지난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컬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머니를 앞세워 PGA 투어의 대안 리그로 띄우려는 슈퍼골프리그(SGL)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그레그 노먼(호주)을 대표로 내세운 SGL은 미컬슨을 비롯해 더스틴 존슨, 브라이언 디샬보(이상 미국) 등 톱클래스 선수들에게 천문학적 계약금을 제시하며 영입작업을 펴왔다.

그러자 미컬슨은 "세계 최고 선수들을 착취하고 걸맞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PGA 투어는 탐욕적"이라고 비판하고 대안 리그에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동료와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단순한 협조를 넘어 그가 SGL의 기초를 놓았다고 털어놓은 최근 인

터뷰는 결정적인 자충수가 됐다. 미컬슨은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전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비판을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내가 왜 그런 것을 신경써야 하는가? 이걸 PGA 투어를 일깨울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주장했고, 비속어까지 쓰며 "나도 그들과 엮이는 건 '끔찍하게(M\*\*\*\* F\*\*\*\*)' 무섭다"고 털어놓았다.

미컬슨의 말에 골프계와 팬, 언론은 놀라며 공분했다. PGA 투어 제이 모나한 커미셔너는 "SGL에서 뛰는 선수는 PGA 투어에서 영구제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눈치를 살피던 더스틴 존슨과 디샬보는 재빨리 "PGA 투어에 전념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팬과 웃으며 소통하고 온화한 신사의 이미지를 쌓아온 미컬슨은 이제 PGA 투어의 악당, 돈 욕심에 눈이 먼 물질 모르는 바보로 전략하고 말았다.



▲ 필 미컬슨 사진=tennisworldusa.org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